

로보티즈 (108490)

2026.08.19

후발 주자들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sec.com

27년부터 폭발적인 외형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액추에이터 업체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로봇의 관절과 같은 구동부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제품인 다이나믹셀 Series를 통해 업력을 쌓아온 로봇 업체다. 동사는 25년 기준 매출액 389.4억원 (+29.6% YoY), 영업이익 33.5억원 (+8.6% OPM)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로보티즈의 실적 구조는 액추에이터 부문으로 돈을 벌어나, 이와 같은 + 현금흐름이 배송 로봇 관련 연구 개발비 상승분 (-)으로 상쇄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5.3Q부터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액추에이터 매출 성장성이 크게 높아지고, 우즈베키스탄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액추에이터 업체이다.

26.2Q Review: 매출액 153.7억원 (+95.1% YoY)

로보티즈는 26.2Q 매출액 153.7억원 (+95.1% YoY), 영업이익 19.7억원 (+718.3% YoY)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로보티즈 26.2Q 매출 성장은 액추에이터 판매 호조가 견인했다 (26.2Q 액추에이터 부문 151억원, 자율주행로봇 2.3억원). 직전 분기에 이어 액추에이터의 높은 수익성이 자율주행로봇 개발에 수반되는 여러 비용에 가려져있다. 그럼에도 26.2Q 액추에이터 부문 영업이익률 22.5%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중국 및 북미 지역 매출 성장성이 눈에 띈다 (북미 매출액 YoY: 142.4%, 중국 매출액 YoY: 153.9%). 북미, 중국 등 주요 지역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수요 증가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보티즈 26.3Q 매출액 182.9억원 (+97.9% YoY), 영업이익 35.7억원 (+1,491.9% YoY, +19.5% OPM) 등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6.2Q 로보티즈 중국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전사 매출 대비 9.6% 수준이나, 26.3Q부터 주요 고객사 공급 물량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로보티즈가 올해 출시한 QDD 액추에이터의 경우 보급형 휴머노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개발 방향성과 동일하다. 로보티즈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베이징에서 열리는 WRC 2026에 참여해 현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이 차단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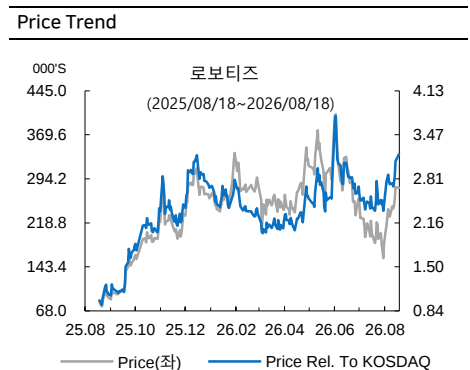
지난 26.08 미국 국방부가 Unitree Robots를 CMC (Chinese Military Company, 중국 군민 융합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업체를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리스트에 등재한데 이어,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휴머노이드와 4족보행로봇을 Covered List에 추가했다. 로보티즈는 북미 권역에 공급하는 주요 제품군에 있어 이미 FCC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CMC List나 Covered List 등과 같이 행정부 단위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을 견제하는 방법에 더해 법률 형태의 규제 또한 관찰될 전망이다. Humanoid Robot Act 외 여러 법안이 현재 미국 하원에 발의된 상태이며, 추후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우회 수출 및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발표된 규제 내에 정밀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관련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핵심 부품 또한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업체 배제 기조에 따른 로보티즈의 구조적 손해가 가능할 것이다.

Buy (Initiate)

목표주가(12M)	400,000원(상향)
증가(2026.08.18)	279,000원
상승여력	43.4 %

Stock Indicator	
자본금	7십억원
발행주식수	1,466만주
시가총액	4,090십억원
외국인지분율	5.8%
52주 주가	75,900~405,000원
60일평균거래량	259,951주
60일평균거래대금	74.7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9.6	1.8	-1.8	244.7
상대수익률	34.2	24.9	26.4	238.9



FY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십억원)	39	73	101	197
영업이익(십억원)	3	1	19	43
순이익(십억원)	5	3	15	36
EPS(원)	377	192	1,020	2,463
BPS(원)	21,361	21,550	22,566	25,026
PER(배)	691.8	1,455.0	273.6	113.3
PBR(배)	12.2	12.9	12.4	11.1
ROE(%)	25	0.9	4.6	10.4
배당수익률(%)				
EV/EBITDA(배)	610.1	1,043.7	185.6	85.4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중국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독일과 일본은 진입이 쉽지 않은 액추에이터 시장

현재 로봇틱스의 액추에이터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거 글로벌 로봇틱스 시장 구조에서 액추에이터 공급 업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FANUC, Universal Robots 등 주요 산업용, 협동로봇 업체들이 직접 감속기와 모터 등의 부품을 조달하고, 이를 액추에이터 모듈 형태로 직접 조립하였기 때문이다. 로봇틱스의 경우 대형 로봇틱스 업체가 아닌 국내외 휴머노이드 관련 스타트업, 랩 등에 제한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왔다. 그렇기에 25년부터 관찰되었던 휴머노이드 산업 수요 증가에 직접 대응이 가능한 액추에이터 업체는 로봇틱스가 사실상 유일했고,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 액추에이터 시장 구조는 오히려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로봇틱스를 추격하고 있다고 봐야 마땅하다. 즉 설사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에 있어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 환경이 오히려 로봇틱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다. 로봇틱스는 우즈베키스탄 공장 건설 및 추가 증설을 통해 현재 CAPA 대비 최소 5배의 램프업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전통적인 로봇틱스 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 포진되어 있는 레거시 부품 업체들이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액추에이터 조립 공정은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로봇틱스의 연간 노무비는 매출원가 중 50% 이상을 구성하고, 우즈베키스탄 공장 건설 발표 당시 저렴한 인건비를 진출 이유로 들었을 정도로 국내 액추에이터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된다.

LG전자와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로봇틱스는 LG전자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LG 전자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LG 전자는 현재 약 6.5% 가량의 로봇틱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 전자의 가정용 로봇 제품에 동사 액추에이터가 탑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객사-공급사의 관계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양사간의 협력은 신규 제품 공동 개발 등과 같은 국면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3년 1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봇틱스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며 양사간 협력 내용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6.06 LG전자와 로봇틱스는 우즈베키스탄 공장 지분 투자 MOU를 체결했다. LG전자가 올해부터 자체 액추에이터 브랜드 약시움을 런칭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 또한 높기에 양사간의 협력 구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봇틱스 목표주가 400,000원 제시, 추가 상승 여력 43.4%

로봇틱스 목표주가를 400,000원으로 제시한다. 28년 매출액 추정치 1,972억원에 근거한 SPS 13,455원에 Target PSR 30배를 적용했다 (중국 정밀 감속기 업체 12Mf PSR 20.2배 대비 북미 권역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한 Premium 50% 부여). 당사는 PSR Valuation으로 목표주가 산출 논리를 설정하였다. 이는 1)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외형 성장을 목표하고, 2) 동사 또한 휴머노이드 사업 구체화 및 자체 사업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에, 당장의 이익의 규모보다는 현재 외형 성장 속도에 집중하고 있는 경쟁 업체 간의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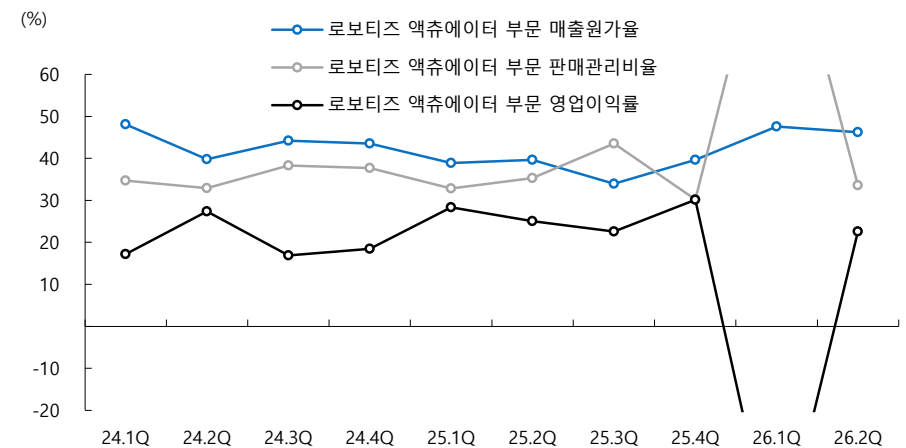
그림1. 국내 주요 로봇틱스 업체 분기별 실적 전망

(억원, %)	25.1Q	25.2Q	25.3Q	25.4Q	26.1Q	26.2Q	26.3Q	26.4Q
레인보우로봇틱스								
매출액	41.8	62.2	106.9	130.2	90.6	123.1	219.2	273.4
YoY	37.3	95.9	208.2	34.9	116.6	97.9	105.0	110.0
로보티즈								
매출액	102.2	78.8	92.4	116.0	118.4	153.7	182.9	273.0
YoY	22.6	-2.7	35.2	71.3	15.8	95.1	97.9	135.4
에스피지								
매출액	933.0	804.7	840.8	838.3	808.3	887.7	1017.4	1047.8
YoY	-4.6	-19.8	-8.8	-14.5	-13.4	10.3	21.0	25.0
한국파이아이엠								
매출액	86.4	89.2	112.0	81.8	83.1	105.0	151.4	124.6
YoY	4.3	-15.3	24.6	-15.2	-3.7	17.8	35.2	52.3

국내 주요 로봇틱스 업체들의 경우 자체 제품 생산 및 전방 업체 수주 인식에 따라 전체적으로 26.3Q 탑라인 성장 관찰 될 것. 이 중 레인보우로봇틱스, 로보티즈의 매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 (로보티즈: 중국향 매출 증가 및 26.4Q 우즈베키스탄 공장 가동, 레인보우로봇틱스: 삼성전자향 제품 공급 확대 및 육군향 4축보행로봇 공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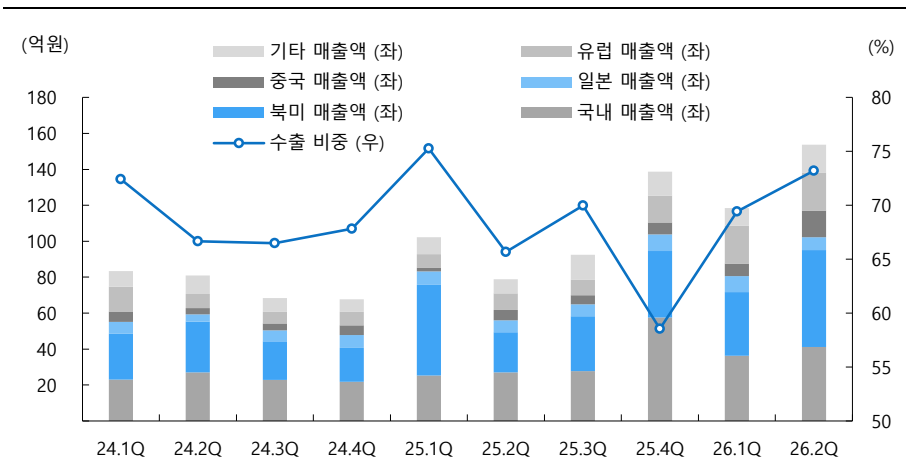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로보티즈 액츄에이터 부문 매출원가율, 판매관리비율,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로보티즈 지역별 매출액 및 수출 비중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로보티즈의 QDD 액츄에이터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개발 방향과 일치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WRC 2026에 참여하는 로보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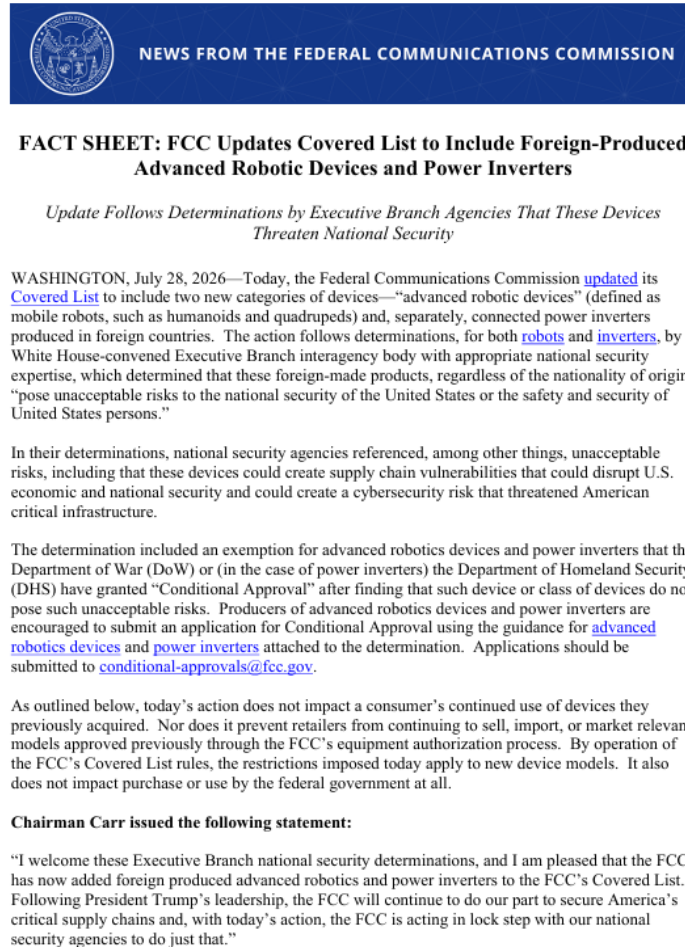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휴머노이드 생산 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Tesla 프리몬트 공장



자료: Tesl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4족보행로봇과 휴머노이드 제품을 Covered List에 편입: FCC의 별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 수입 허용



자료: Unitree Robots,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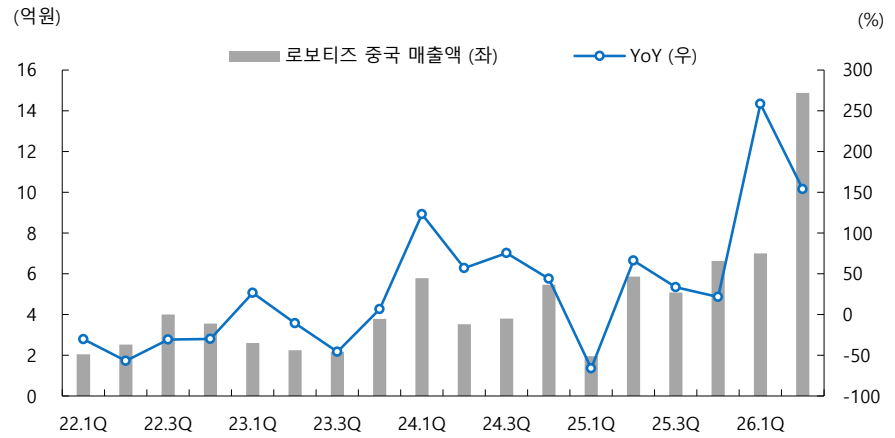
그림8. CMC 리스트, Covered List 등과 같은 행정 명령 단위의 규제 외에 입법의 형태로도 중국 휴머노이드 미국 시장 진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관찰

발의 일자	법령명	주요 내용
25.11	Humanoid Robot Act	연방정부가 중국, 이란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 조달 및 사용을 금지. CFIUS의 로봇 회사 투자 내역 신고 의무 강제
26.02	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연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적대국 연계 업체가 개발한 무인화 장비 (휴머노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26.03	National Commission on Robotics Act	상무부 산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휴머노이드 정책 수립 및 제언 구조 구축

25년부터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이 발의 중인 상황. 이와 같이 중국이 선진 시장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제외된다면, 독일과 일본 등 휴머노이드 관련 개발이 미진한 국가 대비 국내 업체의 경쟁 부각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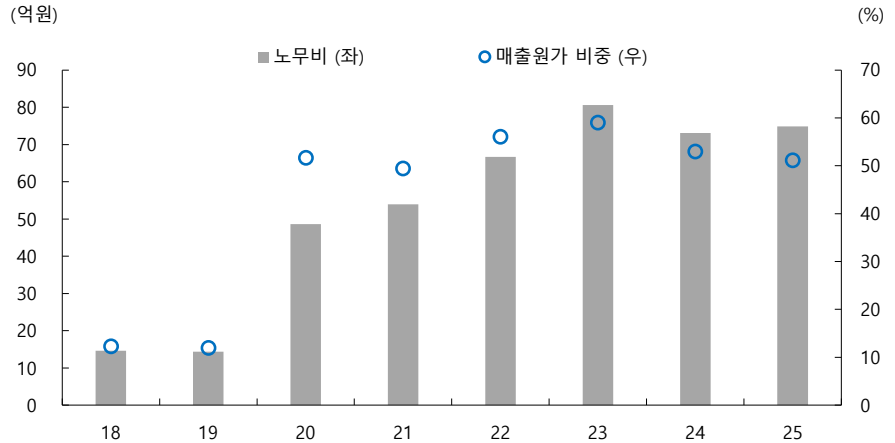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로봇틱스 중국 매출액 및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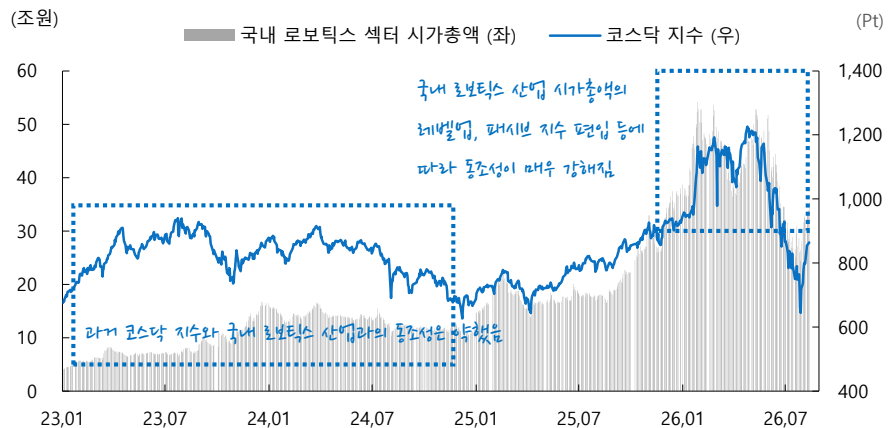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로봇틱스 노무비 및 매출원가 내 비중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국내 로봇틱스 섹터 시가총액 및 코스닥 지수 추이: 섹터 시가총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패시브 수급 영향이 커지며 지수와 동조성 보임. 섹터 하방 단단하다는 근거 중 하나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국내외 주요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 관련 공급망: 핵심 공급망 업체에 주목하되, 여러 시장 플레이어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순환매 과정에서의 여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Boston Dynamics 상장 타임라인, CES 2027에 맞춰 양산 부품 공급망 구축 가속화 될 것. 그룹 차원의 새만금 및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개발 투자 또한 빠른 시일 내 관찰 전망	레인보우로보틱스 중심의 휴머노이드 개발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 웨어러블 로봇 붓셋 공급망에 포함되었거나, 레인보우로보틱스향 부품 공급 레퍼런스 가지는 업체가 주목받을 전망.
현대차그룹	레인보우로보틱스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현대모비스 (Boston Dynamics 액츄에이터 공급 총괄)	에스피지 (레인보우로보틱스향 감속기 공급 레퍼런스)
HL만도 (4족보행로봇용 액츄에이터 개발)	우림피티에스 (삼성중공업향 중대형 기어 공급)
삼현 (액츄에이터 개발 및 현대모비스 협력 부각)	인탑스 (웨어러블 로봇 붓셋 위탁 생산 파트너)
한국피아이엠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향 구동 모듈 공급)	이랜시스 (웨어러블 로봇 붓셋 감속기 공급)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개발, SI 사업 관련 기대감)	삼성SDS
클로봇	씨메스
LG그룹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도 업체
LG전자는 자체 액츄에이터 사업을 목표함과 동시에 서비스용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도 고려. 기존 가전, 전장 관련 공급망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개발 상황을 만회할 만회할 것.	Tesla 및 Figure AI 각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제품 양산 임박. 대부분의 선진 시장 업체들이 양산 관련 공급망이 미진하고, 중국 업체가 배제된 상황에서 국내 업체 수혜 가능할 것으로 전망.
LG전자	현대차그룹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액츄에이터 및 핵심 부품
로보티즈	로보티즈
에스피지	한국피아이엠
하이젠알앤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LG CNS	현대모비스
	HL만도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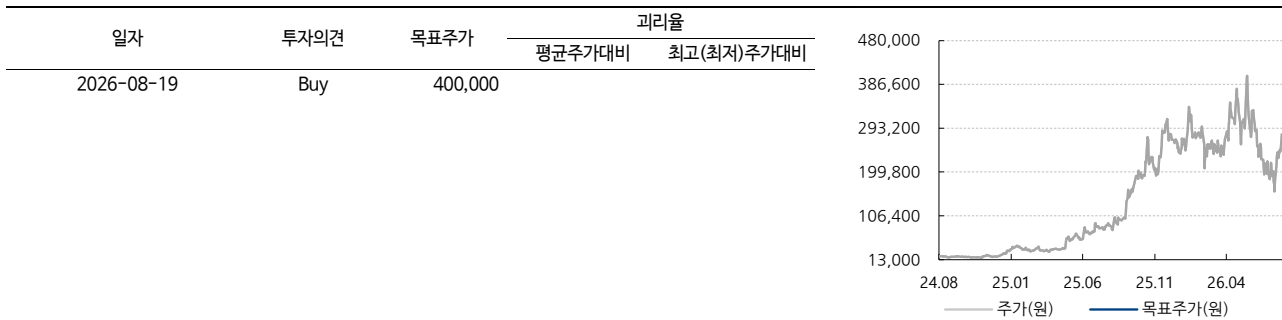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유동자산	248	254	273	316	매출액	39	73	101	197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	1	10	8	증가율(%)	29.6	86.9	39.0	95.0
단기금융자산	197	217	228	239	매출원가	15	32	45	89
매출채권	5	9	12	24	매출총이익	24	41	57	108
재고자산	14	25	20	39	판매비와관리비	21	38	38	65
비유동자산	72	70	67	66	연구개발비	10	18	25	50
유형자산	28	26	24	22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1	1	1	1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320	324	341	381	영업이익	3	1	19	43
유동부채	5	7	8	11	증가율(%)	흑전	-59.3	1,273.2	130.9
매입채무	1	1	2	4	영업이익률(%)	8.6	1.9	18.5	21.9
단기차입금	-	-	-	-	이자수익	2	2	2	2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이자비용	0	0	0	0
비유동부채	0	0	0	0	지분법이익(손실)	-	-	-	-
사채	-	-	-	-	기타영업외손익	0	0	0	0
장기차입금	-	-	-	-	세전계속사업이익	6	6	20	47
부채총계	6	7	8	11	법인세비용	1	1	2	5
지배주주지분	313	316	331	367	세전계속이익률(%)	15.4	8.1	19.3	23.9
자본금	7	7	7	7	당기순이익	5	3	16	38
자본잉여금	290	290	290	290	순이익률(%)	13.6	4.0	15.4	19.1
이익잉여금	18	20	35	71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5	3	15	36
기타자본항목	-2	-3	-3	-3	기타포괄이익	0	0	0	0
비지배주주지분	1	1	2	4	총포괄이익	5	3	16	38
자본총계	314	317	333	370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2025	2026E	2027E	20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7	-15	15	5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5	3	16	38	EPS	377	192	1,020	2,46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2	2	2	BPS	21,361	21,550	22,566	25,026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CFPS	564	352	1,160	2,586
지분법관련손실(이익)	-	-	-	-	DPS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196	-19	-10	-11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2	-	-	-	PER	691.8	1,455.0	273.6	113.3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0	-	-	-	PBR	12.2	12.9	12.4	11.1
금융상품의 증감	-23	-	-	-	PCR	462.7	792.5	240.6	107.9
재무활동 현금흐름	209	-2	-2	-2	EV/EBITDA	610.1	1,043.7	185.6	85.4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	-	-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2	-	-	-	ROE	2.5	0.9	4.6	10.4
자본의증감	210	-	-	-	EBITDA이익률	15.0	5.1	20.5	22.8
배당금지급	-	-	-	-	부채비율	1.8	2.2	2.5	3.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19	-30	9	-2	순부채비율	-72.7	-68.8	-71.5	-66.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2	31	1	10	매출채권회전율(x)	12.3	10.8	9.7	11.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1	1	10	8	재고자산회전율(x)	2.9	3.7	4.4	6.6

자료 : 로봇티즈, iM증권 리서치본부

로보티즈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전]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이전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